

부산서 화합물 전력반도체 개발 논의… 글로벌 협력 모색

‘2022 WBGS 국제심포지엄’ 개최
부산시-경북도-포항시 공동 주최
전기차 등 사용… 에너지 절감 효과

차세대 화합물 반도체(WBGS) 관련 연구개발 정책, 기술개발, 산업화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2022 WBGS 국제심포지엄’이 24일 개최됐다.

WBGS(Wide Bandgap Semiconductor)란 기존의 규소(Si)와 달리 차세대 화합물 소재인 탄화규소(SiC), 질화갈륨(GaN) 등의 반도체로 에너지 절감 등 효과가 뛰어나 전기차 등에 주로 사용된다.

6회째를 맞는 ‘WBGS국제심포지엄’은 국내·외 연구기술 개발 확대를 통한 산업화 촉진과 산·학·연 네트워크

를 구축, 글로벌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로, 6회 연속 부산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부산시와 경북도, 포항시의 공동 주최로 열리며, 올해부터 행사명을 탄화규소(SiC)뿐 아니라 질화갈륨(GaN)소재 분야 등으로 연구영역을 확대하여 행사명을 기존 ‘SiC 국제심포지엄’에서 ‘WBGS 국제심포지엄’으로 바꿨다.

포럼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파워 반도체’는 전기차,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전력을 변환·제어·분배해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리고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특히 연비가 중요한 전기차의 경우 기존의 실리콘(Si) 반도체 대비 에너지 손실을 최대 90%까지 절감가능한 물성을 지닌 탄

화규소(SiC), 질화갈륨(GaN) 등 소재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최근 국내·외에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관련 분야 해외권 위자인 ▲루비사스테바노비치(미국, 제너럴일렉트릭부사장) ▲란비르 싱(미국, 제네식반도체 대표이사) ▲디디에 쇼센드(프랑스, 프랑스국립과학연구원 연구소장) ▲안드레아 이라체(이탈리아, 나폴리대학교 교수) ▲안드레이 쿠즈네초프(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교수) ▲요시유키 요네자와(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연구총괄) 등 전문가들이 해외 최신기술 동향을 발표한다. 시는 이들 6명을 부산시 과학기술인사로 위촉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부산시청

지역 이모저모

여수시

비령길 여객운임비 반값 지원

여수시는 11월 24일부터 12월 28일까지 돌산 신기~남면 여천 항로를 이용하는 일반인(타 지역민) 여객운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 중 절반은 전라남도가, 나머지 절반은 여수시가 지원하며, 이에 따라 타 지역민이 해당 항로를 이용할 경우 현재 운임의 반값인 3,3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여객운임 할인 혜택은 전라남도의 지침에 따라 12월 28까지 적용하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당초 여수시는 도비 보조를 받아 여수~거문항로를 이용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객운임(50%)을 지원해왔다.

/여수(전남)=김용학 기자 jjiacecom@



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조성중인 국내최대어린이 정원인 산이정원조성 /해남군

국내 최대 어린이정원 내년 임시개장

온 가족 복합문화공간 탄생

솔라시도기업도시 내 산이정원
수목원·산책로 등 다양한 시설

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조성 중인 국내 최대 어린이정원인 산이정원이 내년 상반기 임시 개장한다.

산이정원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 내 약 50만㎡(16만평)의 면적에 조성되고 있다. ‘산(자연)이 곧 정원이 된다’라는 의미를 담아 산이정원의 명칭을 부여, 정원도시의 비전을 가진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대표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다. 특히 산이정원은 수목원과 산책로뿐만 아니라 미술관, 카페, 놀이시설 등이 들어서 모든 세대가 정원과 자연을 체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지난 4월에는 전남도, 해남군, 산이면 주민과 함께 참가시, 황칠나무, 동백나무, 느티나무 등 2050그루의 탄소 저감 수종을 심는 ‘약속의 숲 식목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현재 산이정원은 다양한 아열대 식물들과 조형물이 가을을 맞아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임시개장을 목표로 정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에서는 신 환경정원도시를 목표로 기후변화 대응도시, 탄소중립도시, 녹색산업도시라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산이면 구성리의 구성구경을 주제로, 9개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부산시, 서부산권 현장 전략회의 개최

환경·교통 분야 논의

부산시는 24일 사하구 낙동강하굿둑 전망대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 11차 서부산 현장 전략회의를 열어 서부산권의 환경과 교통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심사 중인 가운데 국비 확보가 필수적인 서부산권의 다양한 공약 사업(환경, 교통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세밀한 전략을 강구하기 위해 이번 현장 회의를 마련했다.

전략회의는 현재까지 국비 미반영 주요 사업인 ▲낙동강 유역 안전한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하단~녹산선 건설 등 사업지를 조망하며 전반적인 보고를 받는다. 이어 회의장으로 이동해 서부산권의 환경, 교통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집중적으로 점

검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물 공급체계 구축 ▲낙동강 하굿둑 개방 및 기수생태계 복원 ▲맥도 그린시티 조성 및 낙동강 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 ▲화명근린공원 조기 조성 ▲사상 리버프린트시티(브릿지) 조성 등 환경 분야의 주요 사업에 대한 현안 및 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부산 교통인프라(사상~하단선, 하단~녹산선, 부전~마산복선전철, 사상역 광역환승센터) 건설 ▲만덕3터널 조기 준공 ▲낙동강 횡단도로(대저·엄궁·장낙대교) 조기 건설 ▲제2대티터널 건설 등 교통분야의 주요 사업도 점검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늘 현장 중심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소통하며 사업들을 촘촘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중심상가 주차타워 준공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는 모습.

경주시 공영주차타워 준공… 주차난 해소

주차공간 90→209대까지 늘어

경주시는 23일 오전 중심상가 주차타워 준공식을 개최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기존 중심상가 공영주차장 부지에 들어선 중심상가 주차타워는 2층 3단 형식에 전체면적 3515㎡ 규모로 주차공간이 기존 90여 면에서 209면으로 크게 늘었다. 시범운영 기간인 오는 11월 30일까지 무료로 개방한 뒤 다음 달 1일부터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다. 요금은 최초 10분 미만 무료, 30분(최

초 10분 포함) 500원, 이후 10분당 200원이다.

이날 열린 준공식에는 주낙영 시장을 비롯해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 박승직 경북도의원, 정용하 경주시상인연합회 회장 및 중심상가 상인, 황오·중부동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중심상가 주차타워 건립사업은 주변 상가는 물론 황오동 일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비 30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74억 3000만원이 투입됐다.

/경주(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울산시

장현 첨단산업단 진입도로 내년 착공

울산시는 장현 일반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맞춰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공사는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 중인 ‘울산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기반시설 지원사업이다.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그린벨트 해제 등 절차로 인해 2021년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됐다.

이에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당초 206억원이었던 총사업비를 불가상승분을 반영해 71억원 증액한 277억원으로 승인받아 행정절차를 거친 후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울산=이도식 기자

봉화군, 봉화댐 건설 본격화

경북 봉화군 춘양면에 추진 중인 봉화댐 건설이 본격 시작됐다. 군은 24일 춘양면 애당리 일원에서 봉화댐 건설공사 착수를 기념하는 정초식을 개최했다.

춘양면 운곡천 유역의 홍수 조절을 위한 봉화댐은 높이 41.5m, 길이 266m, 총저수량 310만㎥ 규모의 중심코어형 록필댐이다. 총사업비 536억 원(국비 90%, 군비 10%)을 들여 2024년 준공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19년 11월 공사에 착공해 보상, 가물막이 설치, 우수전환, 이설도로 개설 등 본 댐 건설을 위한 준비작업을 해 왔다.

/봉화(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전남 공공배달앱 100일 이벤트 ‘성황리’

2억6900만원 주문 결제금액 기록

전남 공공배달앱 ‘떡깨비’ 출시 100일 기념 이벤트가 투입예산 대비 6.7배 매출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종료됐다.

전남도는 ‘떡깨비’ 출시 기념 이벤트가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2억 6900만원의 주문 결제금액을 기록하는 등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실제로 5000원 할인쿠폰 이벤트는 시작 19일 만에 조기 소진됐다.

떡깨비 삼행시에는 855명, 음식 후기 작성 이벤트에는 2140명이 참여했고, 추첨을 통해 각 100명에게 1만 포인트 이용권을 지급했다.

음식 후기 작성, 떡깨비 삼행시 등 소비자 참여 이벤트에 높은 참여율을 보여 전남 공공배달앱 ‘떡깨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남=양승년 기자 ysn6313@

구미시

지방재정 세무조사분야 ‘대상’

경북 구미시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 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세 세무조사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매년 지방재정(세출, 세입증대 등) 관련 분야의 실무자들이 모여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행사다.

구미시는 ‘시행사 장부에 없는, 아파트 별도 옵션 추적조사’라는 주제로 누락세원을 방지해 공평과세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미(경북)=김상복 기자